

기후시민은 지친다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나는 자랑스런 기후시민이다. 10월 24일 기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238만4708명 중 한 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원가입이라는 수고를 더해 기후시민증을 받았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겠다는 시민의 의지가 깃든 숫자를 보면, 그들의 일원이라는 생각에 흡족하다. 시민증을 받은 뒤, 기후시민으로서 행동하기 위해 홈페이지 구석구석을 살폈다. 참여기업 페이지에 들어가 각 기업이 주도하는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 매뉴얼도 꼼꼼히 읽었다. 기업마다 앱을 내려받고 회원가입을 했다. 기후시민증을 받았으니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자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벅찬 마음으로 시작한 나의 수고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 참여기업에서 포인트를 받으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할까. 모 유튜브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고 있어 그곳부터 앱을 열었다. 간편 인증 회원이라 통합회원으로 다시 가입해야 했다. 가입을 마치고 내 정보의 탄소중립포인트 관리 메뉴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회원가입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가 나왔다. 이미 가입한 기후시민인데, 그사

실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한숨을 내쉬고 앱을 닫았다. 참여기업 목록을 내려가면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은행, 통신사로 이어진다. 가장 많은 방식은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으면 포인트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역시 기업마다 앱을 깔고, 메뉴를 찾아 들어가 본인 인증하는 과정을 거듭해야 한다. 매뉴얼도 내려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기찼던 기후시민도 지치게 된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은 정부에 탄소중립포인트제도의 유인 방안과 참여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아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에게는 문턱이 더욱 높을 것이다. 사각지대를 좁히는 일은 정책의 몫이다. 촉구할 일은 또 있었다. 그 사이트의 탄소중립포인트 가공식품 페이지는 적립 대상인 친환경 상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상품으로 설명한다. 하얀 설탕, 봉지라면, 김치전이 왜 친환경 상품으로 인증받았는지 알려면 부처에 확인해야 하는 걸까? 제품만 보서는 왜 친환경인지 알 수 없다. 기후시민에게는 자신의 실천이 갖는 의미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 정부도 기업도 기후시민에게 친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기업을 탓할 수는 없다. 의무가 아닌 선택인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적인

로 참여해 탄소중립에 한 걸음을 내딛는 기업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 기업으로서는 자사 앱 이용자를 늘리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다만 기후시민은 포인트만 바라고 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조금은 늦추자는 명징한 각오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이제는 공급자의 논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기업의 이점이 줄어 참여가 줄 것이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낸 사례도 있다. 이탈리아 볼로냐시는 2017년 ‘벨라 모사’ 프로젝트에서 시민의 친환경 이동을 앱으로 기록하고, 제휴업체 80여 곳과 함께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업과 상점은 보상을 제공하고, 시민은 친환경 이동을 실천하며 혜택을 얻는 구조였다. 우리도 이 모델을 친환경 이동에서 친환경 소비로 확장할 수 있다. 또 여기에 기업에는 친환경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설계를 보태는 것은 어떨까. 기후위기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 기후시민이 되어 그 시대를 건너가는 새로운 가치를 얻고 싶다. 이 순수한 바람은 의지마저 소진시키는 ‘수고’를 통해서만 가능한지 정부에 묻고 싶다. 선한 기후시민이 자발적 참여기업과 함께 쉽고 편하게, 자주 기쁘게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기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호황 뒤에 가려진 그늘



이지수첩
안재선
(금융부)

세상은 호황이라고 떠들썩하다. ‘반도체’, ‘경제 도약’, ‘국민 소득 4만 달러’, ‘잠재성장률 상승’ 등의 기분 좋은 이야기가 쏟아진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2년 연속 상승하고, 국민 소득이 4만 달러가 넘는 거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 때문이다. 나라의 실태살아가 나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호황의 온기가 모두에게 닿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리볼빙 잔액은 6개월 연속 증가하며 7조원을 넘어섰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다음 달

로 이월하는 방식이다. 누군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성과급을 누리지만, 다른 누군가는 한 달 치 카드값조차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 결제를 미루고 있다. 같은 경제 안에서도 누군가에게는 호황이, 누군가에게는 버거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카드값을 다음 달로 미루는 데 적지 않은 대가가 따른다는 점이다. 리볼빙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다른 카드사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더 높다. 당장의 결제 부담을 덜 수 있지만, 이월한 금액에는 이자가 붙는다. 다음 달에도 카드값을 온전히 갚지 못하면 이월 잔액과 이자 부담이 불어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한 달을 버티기 위해 미룬 빛이 다음 달의 생계까지 압박하는 셈이다. 그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에게

까지 드리워지고 있다. 본지가 대출 중개 플랫폼인 핀다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전체 대부업 한도 조회수는 지난 7월 1만7494건에서 8월 1만6813건으로 줄어들더니 9월 1만9001건, 10월 초 2만8219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500~600점대였으며, 실제 대출 잔액은 평균 1000만~20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반도체 수출이 늘고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지표상 호황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호황의 풍요가 대기업 등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그늘에 놓인 취약계층은 계속해서 빛의 악순환에 빠져있다면 결국 호황이라는 말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

/wotjs4187@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7일 (음 9월 17일) 포춘토리(fortunetory.com)



48년생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60년생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였으니 어렵게만 됩니다. 72년생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84년생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9년생 새 업무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61년생 타인이 나를 도와 주려고 합니다. 73년생 독자적인 생각을 고집하지 마세요. 85년생 주변에서 만나는 이성과의 반대가 심합니다.



50년생 의무적으로 일에 임하세요. 6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74년생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86년생 유행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51년생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63년생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75년생 꿈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87년생 이래 저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52년생 모두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표창을 받게 됩니다. 64년생 조상을 잘 모셔야 나쁜 일을 면할 것입니다. 76년생 음식을 조심하세요. 88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53년생 식중독에 걸리기 쉬우니 음식을 조심하세요. 65년생 말조심하세요. 77년생 뒷사람과의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89년생 마음을 편안히 가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54년생 마음에 두고 있는 일이 있으면 밀고 나가세요. 66년생 뒷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78년생 평탄하고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90년생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55년생 소원이 이루어 지겠습니다. 67년생 사람들을 너무 믿어서는 안됩니다. 79년생 재수가 좋을 것입니다. 91년생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56년생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보람이 있습니다. 68년생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80년생 각종 분야에 노력을 닦아온 결실이 맺어질 때입니다. 92년생 애정운이 좋지 않습니다.



57년생 몸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쓸 시기입니다. 69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 집니다. 81년생 명예와 부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93년생 자만하지만 않으면 탄탄대로 이겠습니다.



58년생 아주 좋은 시기를 만났습니다. 70년생 어려운 일을 능히 이겨냅니다. 82년생 병들기 전에 건강을 지키세요. 94년생 각고의 노력 끝에 희망대로 소원이 풀리게 됩니다.



59년생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71년생 여행을 떠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83년생 사업을 크게만 벌이려고 하지 마세요. 95년생 계획한 뜻을 굽히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활인검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 칼을 휘두르듯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무장으로 칼의 달인이라는 뜻이다. 또한 장자의 대목에 보면 능숙한 백정이 칼을 잘 다루어 소뿔에서 살을 잘 발라내는 모습을 도인의 경지에 비교하는 대목도 보인다. 보통 칼’하면 일단 겁부터 낸다. 사람을 살상하고 해치는 무기로서의 칼이 우선 연상되기 때문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칼만큼 일상 생활에 도움을 주는 물품도 드물다. 무기로도 사용되지만, 종류도 다양하여 요리나 수술 집도에도 사용되는 등 의료용이나 조리 등 실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도구이다. 소용되는 곳에 따라 살인 검도 되지만 활인검도 된다. 활인검이라 함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라는 의미다. 칼인데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모순된 의미 같지만 어떠한 도구이든 쓰임에 따라 기능을 달리함을 뜻하는 것이니 굳이 칼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모든 사물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순기능을 강조하더라도 다름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인이나 사냥꾼이 전쟁터나 사냥에 나갈 때 무기인 칼을 항상 꺼내 들고 다니지 않는다. 칼집에 넣고 있다가 필요한 적시에 휘두르는 것이다. 극도의 이익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마음 수행을 활인검으로 삼을 것이고 누군가는 사회화사나 보시나 기도 발원으로 활인검을 장착할 것이다. 때때마다 오는 초하루나 보름 기도 또는 요즘 같은 하늘이 열린다는 시월에 상달 기도를 올리면서 운기를 북돋우는 것으로 피흉취길의 활인검으로 삼아볼 수 있다. 우리 마음도 들여다보면 칼과 다름 바가 없음을 알아 마음을 잘 살피고 단련해볼 일이다. 화가 치성하면 주변 사람을 찌르고 베어 버리는 상처를 낸다. 도구로 쓰는 칼만이 칼이 아니다. 화가 날 때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그리하면 마음은 신기하게도 화의 바람이 누그러짐을 알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21호	
일간메트로경제 <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25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3X3 스도쿠

결합형스도쿠10

3X3 스도쿠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도서

9	2	7	2	1	6	8	8	9
1	9	8	9	8	2	6	7	
2	6	8	9	7	8	1	9	2
8	2	9	6	9	7	8	2	1
7	8	1	2	2	9	6	8	9
6	9	2	8	8	1	7	9	2
9	7	9	8	6	2	2	1	8
8	8	2	1	2	9	9	7	6
2	1	6	7	9	8	9	2	8

2	7	8	8	1	9	9	2	6
1	9	9	2	8	6	2	7	8
2	6	8	9	2	7	1	9	8
9	8	2	1	6	8	7	9	2
9	2	1	7	2	8	6	8	9
6	8	7	2	9	9	2	8	1
7	2	9	6	8	2	8	1	9
8	9	2	8	7	1	9	6	2
8	1	6	9	9	2	8	2	7